

AI 반도체... AI 합성... 데이터... AI의 미래 제시한 韓기업들

데이터·AI 기업, ICT 연구기관 AI 학습 데이터 가공, 라벨링 등 관련 서비스 시연... 러브콜 쇄도 자율주행 데이터수집 기술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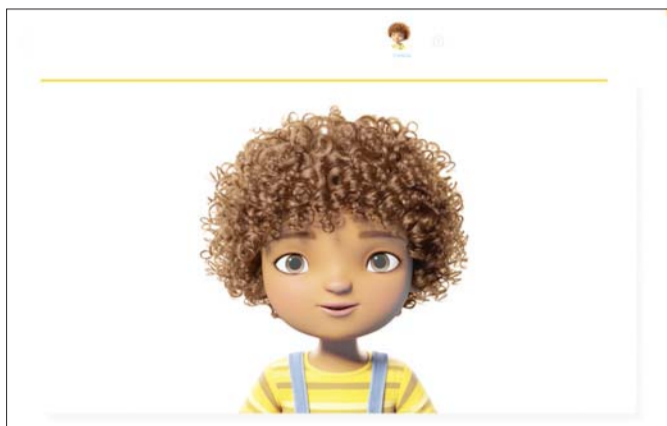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업, ICT (정보통신기술) 연구기관 등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1'에서 AI 배우, AI 경량화, AI 반도체 기술은 물론 '데이터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가공 솔루션, 데이터 익명화 기술 등을 전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네오사피언스·에이모·인피닉·노타·딥핑소스 등 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CES를 통해 AI 혁신 기술을 시연했으며, 제휴 문의나 상담 요청, 제품 이용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호응을 얻었다.

AI 음성 합성 전문업체인 네오사피언스는 CES에서 AI 음성기술과 이와 연동된 AI 아바타 기술을 선보였다.

네오사피언스는 유효 가입자수 16만 명을 돌파한, 60여종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는 AI 성우 서비스 '타임캐스트'의 진화된 형태인, AI 배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콘텐츠의 비주얼이 될 얼굴을 선택하고 성우 서비스를 결합한 아바타 서비스이다.

네오사피언스는 또 이번에 지난해 1000% 이상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오사피언스가 CES에서 선보인 AI 음성기술과 아바타 기술을 접목한 AI 배우 서비스. /네오사피언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영어권 나라를 첫 번째 타깃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AI 성우 5인 이외에도 AI 성우를 늘려갈 계획이다.

네오사피언스 관계자는 14일 "기존에 오디오북 제작, 기업 아바타·컨시어지에 넣는 목소리를 구매하는 기업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CES에서는 영화·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대형 글로벌 방송사 등에서 많은 문의를 받았다"며 "AI 배우는 누구나 손쉽게 제스처를 지정하고 감정을 조절해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기업, 유튜버 등이 론칭 시기와 사용 문의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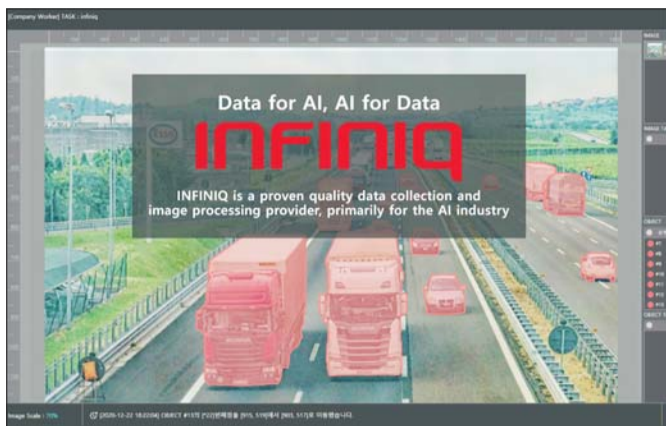
AI 학습데이터 가공 플랫폼 기업인 에이모는 이미지텍스트 인식(STR), 드론 객체 감지, 3D 인체 동작 인식 뿐 아니라 의료 분야 DICOM 파일 라벨링

모델 등 고도화된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공개했다. 또 웹 기반 AI 학습 데이터 라벨링 협업 플랫폼인 '에이모 엔터프라이즈'도 선보였다. 에이모는 현재까지 약 10여개 기업과 상담을 진행했다.

에이모 관계자는 "CES 2021에서 라이다(LiDAR)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최근 자율주행뿐 아니라 가전과 산업 등 여러 분야에 로봇이 도입되는 추세라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다를 도입하고 상용화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학습데이터 전문 기업 인피닉은 클라우드소싱 플랫폼 '마이크라우드'를 선보였다.

마이크라우드는 데이터 기술 및 비전 AI를 기반으로 데이터 가공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했



인피닉이 CES에서 선보인 클라우드소싱 플랫폼 '마이크라우드'를 자동차 데이터 가공에 활용한 모습. /인피닉

다. 자동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매직핀' 기능을 도입한 자동화로 효율성도 높였다. 또 인피닉은 실내의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기술을 공개했다.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용 차량을 활용해 RGB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나이트 비전 카메라 등으로 실제 도로 위 360도 영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쇼핑몰, 공공장소, 편의시설 등 건물 내부의 경우 수집용 로봇을 운행해 디지털 공간 데이터를 모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해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지능형 음장보안 센서 기술 등을 전시했다. 또 기술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을 초청,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상담도 진행했다.

AI 반도체 기술은 AI 알고리즘의 복잡한 연산 처리에 최적화된 칩 개발 기

술로, 40테라플롭스(TFLOPS) 수준의 연산 능력으로 최고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전력 소모는 15와트(W)에 불과하다.

ETRI 관계자는 "일본,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AI 스피커와 융합한 센서 기술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며 "AI 반도체 관련 온라인 화상회의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공공·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화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 성장 동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업 노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ES에 참가했으며, AI 모델 자동 경량화 솔루션인 '넷츠프레스'를 선보였다. 넷츠프레스를 활용하면 전문 엔지니어가 없어도 단기간 경량화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얼굴인식 기반 출입제어 솔루션과 객체 인식 기반 매장 관리 솔루션도 시연했다.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 지원으로 참가한 딥핑소스는 AI 기반으로 개인 식별정보는 제거하고 학습에 꼭 필요한 정보만 보존하는 데이터 익명화 기술과 저작권 보호 기술을 공개했다. 딥픽셀과 아트랩은 AI를 기반 증강현실(AR) 뷰티 가상 착용 솔루션인 '스타일AR'과 피부 데이터 분석·케어 솔루션인 '스킨로그'·'매니폴드'를 선보였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LG올레드 TV.

/LG전자

LG 롤러블·올레드TV... '최고 제품' 영예



LG롤러블.

올레드 TV, 7년 연속 수상 '패거' 롤러블, 모바일기기 부문 '최고상'

LG 롤러블이 CES2021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 LG 올레드 TV도 다시 한번 수상에 성공했다.

LG전자는 1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엔가젯이 발표한 CES2021 최고상에 LG올레드 TV와 LG 롤러블이 각각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엔가젯은 CES 공식 어워드 파트너로, 매년 부문별로 최고 제품을 뽑아 시상한다.

LG올레드 TV는 7년 연속으로 TV 부문 최고에 올랐으며, 특히 올해에는 미니 LED 등 다양한 신제품 TV가 공개된 상황에서도 수상에 성공하며 높은

성능을 인정받았다. 앞서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 선정 게이밍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엔가젯은 이 제품이 "풍부한 색상, 깊은 블랙 레벨 등 기존 LG 올레드 TV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신 화질/음질 엔진인 알파9 4세대 프로세서가 영상을 분석해 최적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 스피커로 가상의 5.1.2채널 입체음향을 내며 최적의 화질과 음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LG 롤러블도 모바일 기기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기대감을 높였다. CES2021에 공식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컨퍼런스 영상에서 제품명과 디자인 일부를 공개하는 티징 형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재용 기자 iuk@

에이수스, 고성능 신제품 노트북 공개

일상·업무·게이밍 등 최적화 젠북 듀오 시리즈 등 대거 선보



ROG 플로우 GV301 & ROG XG 모바일.

에이수스가 전세계에 고성능 노트북 기술력을 뽐냈다. 휴대성과 고성능을 모두 충족하며 다양한 수요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에이수스는 12일과 13일(미국 현지시간) CES2021에 라이프스타일과 비즈니스, 게이밍 등에 최적화한 노트북 신제품을 공개했다.

선보인 제품은 ▲젠북 듀오 시리즈 2종(젠북 프로 듀오 15 올레드, 젠북 듀오 14)▲젠북 시리즈 2종(젠북 13 올레드, 젠북 플립 15)▲TUF 대쉬 FX516▲ROG 스카 2종(ROG 스카 G533, ROG 스카 G733)▲ROG 제퍼러스 듀오 GX 551▲ROG 플로우 GV301 & 외장 그래픽 ROG XG 모바일 등이다.

젠북 프로 듀오 15 올레드(UX582)는 화질에 집중한 모델이다. 고성능 4K OLED HDR 나노엣지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색재현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블루라이트를 최소화해 눈 건강도 지켜준다. 인텔 10세대 i9프로세서와 엔비디아 GPU 등 고성능칩에, 스크린패드 플러스로 듀얼 디스플레이도 지원한다. 스타일러스 펜도 기본 탑재해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도 있다. 젠북 듀오 14(UX482)는 16.9mm의 얇은 두께와 1.6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풀HD 나노엣지 터치 디스플레이와 틸트형 스크린패드 플러스는

활용도를 높여준다. 젠북 13 올레드(UX325)는 1.14kg 무게에 풀HD OLED 디스플레이, 배터리 사용 시간 13시간 등을 내세웠다. 젠북 플립 15(UX564)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15인치 컨버터블 노트북이다.

게이밍 노트북은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 TUF 대쉬 FX516은 최대 11세대 인텔 i7-11375H CPU와 지포스 RTX GPU를 탑재했다. 그러면서도 19.9mm 슬림한 두께와 2kg 가벼운 무게를 구현했다. MIL-STD-810H 밀리터리 인증도 받았다.

ROG 스카 G733은 최대 300Hz의 고주사율에 3ms의 빠른 응답 속도를 낸다. 최신 라이젠 9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GPU에 최초로 광학식 키보드를 탑재해 게이머들 수요를 노린다. 기존 모델보다 크기도 7%나 줄었고, 90Wh 고용량 배터리로 사용 시간도 늘렸다.

다목적 제품도 있다. ROG 제퍼러스 듀오 GX551은 ROG 스크린패드 플러스를 활용할 수 있어 게임과 영상 작업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액티브 에어로 다이내믹 시스템 플러스로 저소음도 실현해냈다. /김재용 기자